

# 히스레리적인 전쟁광기를 부리는 날강도 미제를 박멸해버릴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발표후 470여만명의 청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인민군대입대, 복대 탄원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완전피멸》 시키겠다고 함부로 췌쳐대며 최후발악하는 불구대천의 원수 미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멸적의 의지를 안고 온 나라 인민이 수령보위, 사회주의수호전의 성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성명이 발표된 후 6일동안에 달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은 나라에 거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참군열풍은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보려고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한 미친개무리를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다스리 고야말 강용한 우리 인민의 천백배 보복의지의 폭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말씀하시었다. 《전체 인민이 우리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과는 반드시 결판을 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침략자들을 격멸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면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성명은 위대한 병진의 기치높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의 마지막결승선을 향한 만리마대고조진군에 떨쳐나선 천만대구의 가슴가슴을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활활 불태워주고 있다.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을 제일생명으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는 우리의 청년전위들이 반미최후성전의 앞장에서 총결기해나섰다. 전국각지의 청년학생들은 모

임을 열고 《위대한 령장께서 원수격멸의 퇴성을 올리셨다》, 《500만개의 핵폭탄을 터뜨려 악의 제국 미국을 지구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내자!》, 《부나비처럼 헤엄치는 미국미치광이들을 모조리 박멸하자!》 라는 글들을 인민군대입대, 복대탄원서마다에 써넣으며 조국보위에 앞을 다투어 떨쳐나섰다.

조국방 방방곡곡의 일터와 교정마다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 청년학생들은 179만여명에 달한다.

력사적인 성명발표후 3일동안에만도 평안북도에서 12만여명, 황해남도에서 9만7,000여명의 근로청년들이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한것을 비롯하여 미국양키들의 무모한 침략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뭇개버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

업소 등 대고조전투장마다에서 청년들의 탄원열풍은 날을 따라 고조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리수복순천화학공업대학, 황남공업대학 등 전국의 대학들에서도 수많은 학생청년들이 당과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지켜 조국의 존토를 피로써 사수한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이 지니었던 결사의 조국수호정신을 안고 혁명의 군복을 입을것을 결의해나섰다.

반미총결사전에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각지에서 열린 청년학생들의 탄원모임들에서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기어이 결판을 내고야 말 열혈의 복수자들이 터치는 멸적의 함성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청년탄원자들의 가슴마다 백두밀림에서 포악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 항일혁명선열들과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버리고 7. 27전승신화를 창조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

어 미국의 수치스러운 종말의 마지막페이지를 보기 좋게 써 줄 전투적기상으로 뛰어넘고 있다.

각계층 근로자들도 력사적인 성명에 접하자마자 2,500만 우리 인민의 절멸을 췌친 극악무도한 양키무리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격분으로 치를 떨며 마치와 낮을 혁명의 붉은 총창으로 바꾸어 들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열의드높이 인민군대입대와 복대를 탄원하였다.

전국의 로동계급은 우리당이 대사변개시명령만 내리면 즉시적인 징벌타격전의 선두에서 철의 대군단이 되어 남조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은 물론 태평양 건너 미국본토의 씨종자들까지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각오를 안고 떨쳐나섰다.

백악관의 정신병자가 유엔무대에 플레뚜기처럼 뛰어들어 떠벌인 그 무는 《완전 파괴》 망발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사회주의협동벌의 농업

근로자들은 용약 결전장으로 달려나가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깡패무리들을 서슬푸른 총창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릴것을 결의해나섰다.

우리의 녀성들도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가 정들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날뛰는 미치광이무리들에게 참혹한 죽음과 파멸을 안길 복수의 일념으로 인민군대입대, 복대를 탄원해나섰으며 그 수는 날로 늘어나 122만여명에 이르렀다.

투철한 조국수호, 혁명보위정신을 지니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 삶의 보금자리를 끝까지 사수하기 위해 반미결사항전에 총결기해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이 행성에 온갖 불행은 몰아오는 악의 총본산인 미국을 지구상에서 초토화해버리고 최후승리의 불은기를 높이 휘날려갈 필승의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총매진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 사설 :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평화와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자

오는 10월 4일은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돛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열리고 여기에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된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와 자주통일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입니다.》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되고 번영하는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과 로고에 의해 마련된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96(2007)년 10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또다시 마련해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 고매한 덕망으로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통령일행을 따듯이 맞아주시고 오랜 시간의 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실천적문제들에 명

쾌한 해답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과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온 겨레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속에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 발표되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우리 겨레가 새 세기에 높이 들고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이다.

10.4선언에는 북과 남이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갈데 대한 문제,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보장을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은 겨레가 지지찬동하고 세계가 환영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그대로 리행되었더라면 북남관계는 훨씬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친미보수 《정권》들이 련이어 등장함으로써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일시에 얼어붙고 최대로 악화되게 되었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 《정

권》들은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6.15의 귀중한 성과들을 모조리 뒤집어엎었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접경의 위험천만한 지대로 만들었다.

남조선에서 《초불혁명》에 의해 태어났다는 현 《정부》는 동족의 정정당당한 자위적 핵무력강화조치들을 걸고들면서 미국과 야합하여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살소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내외반통일전쟁세력의 책동으로 평화가 엄중히 위협을 받고 통일위업수행에도 난관이 조성되어있지만 우리 겨레는 비판하지 않고 더욱 용기백배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겨레에게는 절세위인 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년전 력사의 땅 관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할 굳은 결심과 의지를 천명하시였으며 온 겨레를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두해전 8월 군사분계선의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원인모를 《지리사건》을 둘러싸고 조선반도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에도 정세의 난황을 헤칠 단호한 결심과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급접촉을 열도록 하시으로써 민족의 머리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탁월한 조국통일로선과 방침들을 제시하시여 겨레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자위의 핵보검으로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고계신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그이의 탁월한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들은 겨레가 통일의 길에서 끝까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자주통일의 이정표이며 불멸의 조국통일대강이다. 6.15시대의 환희로운 나날들과 그후 북남관계를 파피에로 몰아간 지난 10년간의 나날들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철저한 고수리행에 조선반도의 평화

와 민족의 번영, 통일이 있음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통일의 종착점을 향해 매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과 의지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대조선압살과 핵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며 정의의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첨예한 조미핵대결은 단지 공화국과 미국사이의 대결만이 아니라 우리 겨레에게 세기를 이어 온갖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고있는 미국대 조선민족의 대결이다. 포악무도한 제국주의 깡패국가인 미국은 지금 이시각에도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를 부르짖으며 삼천리를 열핵참화지대로 만들고 우리 겨레모두를 멸살시키려고 분별을 잃고 날뛰면서 야수의 본색을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미국의 횡포한 침략광기를 짓누르지 못한다면 이 땅의 평화도 없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도 있을수 없다. 평화는 오직 조선민족자신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공화국의 완성단계에 이른 자위적핵무력은 미국의 침략위

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전체 조선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와 평화의 위력한 보검이며 억만공파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은 겨레는 동족의 자위의 핵을 걸고드는 외세에 아부굴종하면서 무분별한 대결전쟁소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는 호전세력들의 친미사대매국행위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재앙을 스스로 초래할 어리석은 친미굴종적자세를 버리고 전쟁을 마구 부르짖는 미국의 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정의와 애국애족의 편에 서야 한다.

전민족의 단합실현에 민족의 자주도 있고 반전평화를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지름길이 있다. 온 겨레는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통일의 그날까지는 아직 멀고 험한 가시밭길이 놓여있지만 자주통일은 대세이고 그 승리는 필연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자주통일의 그날을 반드시 앞당겨오야할것이다.

# 사 랑 과 증 오

유엔무대에서 무엄하게도 조선을 향하여 떠벌인 미국집권자의 망발은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지난 9월 21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을 높이 받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반미최후대결전에 총결기해나섰다.

악의 제국에 비참한 과멸을 선고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명에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깃들어있고 조선에 대한 적대감과 압살광기를 최대로 드러낸 트럼프와 미국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와 단호한 징벌의지가 자자구구에 응축되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이 세상에서 인민을 가장 신성시하시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시는 인민적지도자의 귀감이시다.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하시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모두의 가슴을 울려준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의 인민관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천분으로, 인민의 행복창조를 인생의 목표로, 삶의 보람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는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기에 인민을 위한 창조물이 훌륭히 일떠섰을 때에는 너무 기쁘시여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어 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가자고 절절히 말씀하시는것이 아닌가.

그이께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회한한 창조물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또 한해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서고보니 나를 굳게 믿어주고 한마음한뜻으로 열렬히 지지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어떻게 하면 신성히 더 높이 떠받들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속에 지난 한해를 보냈는데 올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

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일떠세우시고 가꾸어오신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강대한 나라, 행복의 터전을 백년속적 미국의 대통령이라는것이 《완전 파괴》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이처럼 훌륭한 사랑하는 인민을 감히 전멸시키겠다고 사나운 이발을 드러내었으니 어찌 원수님의 심중에서 적대세력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래전 이탈리아의 한 작가는 사랑은 증오이라고 말하였다.

사랑의 감정은 그것을 해치려는자에 대한 증오의 감정으로 표출된다는 의미일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뜨겁고 절절하시여 그 조국과 인민을 해치려고 가장 황포한 기도를 드러낸 미국에 가장 큰 증오를 담아 무서운 징벌을 선고하신 백두령장의 성명.

그것은 아직 이 세상이 다 알지 못하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성명에서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꾀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미국의 늑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고 추상같이 선언하시였다.

하나의 주권국가와 2500만명의 인민을 절멸시키겠다고 꾀한 늑다리미치광이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불을 즐기는 불망나니, 승냥이 미제를 가장 단호하게, 가장 무섭게 징벌하고야말려는 령장의 결심과 의지가 성명의 문구마다에서 우리처럼 진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불의를 용서치 않으시며 결심이 단호하고 타격이 무자비하신 령장중의 령장이시다.

두해전 8월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미국의 배후부추김일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지뢰폭발》사건을 구실로 엄중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정세를 최극단에 몰아갈 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즉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들이 불의작전진입이 가능한 완전무장한 전선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을 하달하시여 호전세력의 기를 꺾고 조선반도에 조성되었던 위험천만한 사태를 평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와 뛰어난 예지, 희생적인 헌신으로 국가행력을 최대로 강화시켜주시는것도 핵무기를 휘두르며 온갖 전횡과 침략을 일삼는 미국을 제압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시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천출명장께서 진두에서 이끄시는 조선의 반미대결전은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대전이다. 그것으로 하여 가장 정의롭고 성스러운 대전이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반드시 이기는 대전이다.

트럼프가 식인종의 기질을 드러내며 2500만인구의 절멸을 꾀할 때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는 수도로부러

멀리 떨어진 황해남도 과일군을 찾아주시였다.

사과나무마다에 가지가 휘여지게 달린 사과알들을 한알한알 만져보시며 끄적끄적 많이 달렸다고 호탕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눈썹리 아득히 펼쳐진 청춘과원을 바라보느라니 정말 기분이 좋고 어깨춤이 절로 난다고, 수천정보의 과수밭을 다 돌아보고싶은 심정이며 보고 또 볼수록 기쁨과 환희로 가슴이 들먹인다고, 우리 인민들이 과일군에 펼쳐진 과일대풍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를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말끔히 가셔진다고 그리고도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에 온 나라 인민이 뜨거운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딸라와 인간도살의 광기가 풍기는 핵무기밖에 모르는 미국이 과연 령도자와 인민이 사랑으로 뭉친 조선과의 이 세기적싸움에서 이길수 있겠는가.

정의의 핵은 폭제의 핵을 짓누른다. 정의의 위엄에 령도자와 군인이 하나로 굳게 뭉쳐 떨쳐나서고 행성의 절대병기까지 틀어쥔 조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최후승리의 환희로운 축포는 머지않아 이 땅에서 터져오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 국가핵무력완성의 길에서 ◎

### 개발창조형의 로켓공업으로

지난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식의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력탄도탄 《북극성-2》형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

만리대풍으로 치솟는 탄도탄의 자랑찬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그이께서는 《북극성-2》형은 작전리용에 편리하면서도 타격의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무기체계이며 발사대차와 탄도탄의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명실공히 주체탄, 주체무기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이 또 하나 탄생한데 대하여 더없는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제는 우리의 로켓공업이 액체로켓발동기로부터 대출력고체로켓발동기에도 확고히 전환되었으며 견본모방형이 아니라 개발창조형공업으로 비상히 강화발전되었다고, 이제 우리 인민군대는 수중과 지상 임의의 공간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속하게 전략적임무를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였다.

###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3월 새형의 대출력발동기 제작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이른새벽 서해위성발사장에 나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발동기의 기술적특성과 지상분출시험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감시대에 오르시여 시험전과정을 세심히 관찰하시였다. 성공적인 과학기술적지표들을 접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너무도 기쁘시여 새형의 발동기연구제작에 기여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을 일찌안아주시고 몸소 등에 업어도 주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시험에서의 성공은 로켓공업부문에 남아있던 교조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답습하던 의존성을 완전히 뿌

리 뽑고 명실공히 개발창조형공업으로 확고히 전변된 주체적인 로켓공업의 새로운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대사변이라고 하시면서 로켓공업발전에서 대비약을 이룩한 오늘은 영원히 잊을수 없는 날, 《3.18 혁명》이라고도 칭할수 있는 력사적인 날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 반미의 《용암》이 악의 제국을 불사른다

조선은 《완전 파괴》 하겠다는 천인공노할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의 정수리를 호되게 들이치고 행성을 팡팡 울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회의 위원장성명을 접하여 지금 온 나라가 반미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미국의 늑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는 백두령장의 추상같은 멸적의 선언에 화답하여 온 나라가 일떠서고 미국의 전쟁광들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슴마다에 꿰이며 천만군민의 격노한 징벌의 웨침이 이 강산을 불도가니처럼 달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반미대결전에 총결기하여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무력성 군인집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집회들이 진행되고 평양시를 비롯하여 각도와 시의 군중집회들도 련일 진행되고있다. 가정과 일터, 거리의 곳곳에서 사람들은 정치문화회이고 불망나니인 트럼프에 대한 격한 분노를 터치고 단호히 불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나같이 웨치고있다.

지금 조선은 반미의 거대한 불화산을 방불케 하고있다.

오늘 조선이 벌리는 반미대결전, 전민항전은 자기의 존엄과 운명을 지켜 미국과 세기를 이어 벌리고있는 대결이며 가장 포악무도한 압살광기를 드러낸 악의 제국을 더이상 용납

치 않고 징벌의 철추를 내리려는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의 세찬 분출이다.

돌이켜 보면 천만군민이 령도자를 보위하는 거대한 성새를 이루고 방패가 되어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승리의 한길로 굴함없이 줄달음쳐온것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군대와 인민의 기질로 되고있다.

1950년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였을 때에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력사적인 방송연설을 받들고 조국보위를 위한 성전에 산악같이 일떠서 싸웠다.

인민군인들은 장군님 세 위주신 인민의 나라를 한몫씩 바쳐 지킬 결사의 각오를 안고 불비속을 뚫고 남으로 진격하였으며 조국의 귀중한 촛토를 한치도 적에게 내어줄수 없으며 고지우에서 적들에게 불벼락을 들쳐우고 수류탄뭉음을 안고 적땅크밀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후방인민들은 전선탄약생산과 수송을 보장하였으며 식량증산으로 전쟁의 승리에 이바지하였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또 얼마나 승리자의 기상을 높이 떨치였는가.

미국이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조선의 도시와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100년이 걸려도 조선은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꾀치였으나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영웅조선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여 복구건설의 기적을 창조하고 이 땅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지난 세기 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조국과 인민의 운명지켜 멀고 험한 전선길을 헤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그리며 부닥치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발전소들과 제염소를 일떠세웠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은 군대와 인민이다.

오늘 공화국이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어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는것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애국의 병진로선을 절대적으로 지지옹호하고 판철했은 군대와 인민의 피어린 투쟁과 불타는 애국충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선에서는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동체이다. 령도자의 뜻이 군민의 뜻과 의지로 되고 령도자가 결심하면 군대와 인민은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운다.

조선의 이 일심단결의 위력, 혼연일체의 위력이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 강한 조선의 제일국력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최후승리의 평마루를 향해 노도쳐 나아가는 조선의 이 진군을 누구도 막을수 없다.

지금 미국에 대한 서리발친 증오와 복수심이 차넘치는 군중집회장들마다에서도 《백두의 천출명장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반석우에 솟아난 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의 불가항력적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례없는 대혁신, 대비약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적들의 전쟁도발책동과 제재봉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성명은 우리 청년들을 결사전으로 부르는 공격명령이다. 그이를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 결사옹위하는 제일결사대,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가 되자.》 등의 힘찬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세인이 찬탄하는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 밑에 정의의 반미최후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의 밝은 래일이 기약되어 있다.

박영남

# 승리의 문어구에 서있는 북

지금 우리 해외동포들은 병진의 기치높이 자위적핵무력을 가일층 강화하면서 조선민족을 열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미국의 전쟁광기를 통쾌히 제압해나가는 북의 우람찬 기개에서 민족의 밝은 래일을 내다보고있다.

최근 북이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시험에서 완전성공한것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력사에 특기할 또 하나의 대사변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북은 절대병기, 《황제 폭탄》과 함께 그 운반수단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높은 강국의 기개를 더 높이 떨칠수 있게 되었다.

북의 자위적핵무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는 정의의 보검이며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이다.

나라와 민족이 힘이 없으면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고 엄청난 재난을 당하기마련이다. 지금도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힘이 세면 불의도 《정의》로 둔갑되고있는것이 행성의 어지러운 현실이다.

핵이 갖는 거대한 의미는 그 자체가 전쟁을 막는 최강의 억제력이라는것이다.

지금까지 인류사에는 무려 1만 4 500여차례의 전쟁이 기록되어있다. 하지만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졌지만 그 나라들사이에서는 단 한차례의 전쟁도 없었다.

북이 맞서고있는 주되는 적수인 미국은 핵무기에 의한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기초하여 힘이 약한 상대만을 플라

가며 미싸일을 퍼붓고 침공의 군화발을 내딛는 가장 횡포무도한 강대국가이다.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가 바로 힘이 약한 탓에 미국에 것처럼 처참히 당하였다.

약자의 수난과 말없는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지난 4월 미국은 대국으로 자처하는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자기 땅에 초청해놓고는 보란듯이 수리아에 미싸일을 퍼부었다. 한두발도 아닌 무려 59발의 미싸일을 마치 불꽃 날리듯 남의 나라 지경에 날려보낸 사실에 세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들을 더욱 아연케 한것은 미국이 미싸일공격개시 몇시간전에 로씨야에는 사전통보를 하여 수리아공군기지에 있던 자기 군인들과 무장장비들을 전부 철수시키게 한것이다.

이것으로 알수 있는 두가지 명백한것이 있다.

하나는 미국이 핵을 가진 로씨야와는 군사적충돌로 치닫는것을 기피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멈춰세우지 못했다는것이다.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에 앞장서야 할 유엔도 미국의 한갓 거수기역할을 하고있는것이 오늘의 부당한 세계정치현실이다.

북은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도, 다자간의 합의도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전략된 비극적인

현실에서 자기를 지킬 힘은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 부득불 미국의 가증되는 핵공갈과 위협에 맞서 핵보유를 선택하는 전략적결단을 하였던것이다.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시기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언하면서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하며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라고 떠들던 미국이다. 그리고 지난 60여년간 이남에 수많은 핵무기들을 전개하고 각종 대규모북침합동전쟁연습들을 벌여놓으며 북을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해온 미국이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귀중히 여기는 북은 지금까지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하여왔다. 그래서 북미사이에는 지난 시기 일련의 합의들도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그 합의들을 깨고 북을 계속 핵공갈하고 침략위협해온것은 미국이었다.

세상사람들이 잘 알고있는 방코델타아시아은행사건이 그 단적인 레이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을 북과 부당하게 련계시켜온 미국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합의하고 바로 다음날인 9월 20일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북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북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했지만 북은 《악의

축》으로 몰아대면서 핵선제공격명단에 올려놓았으며 불의의 핵선제공격을 위한 북침핵전쟁 각본들을 부단히 수정, 보충, 완성해왔다. 전 미국방장관 파네타는 2011년 10월 이남의 국방부 장관에게 조선반도유사시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립장을 전달했음을 스스로 실토했다.

2015년 가을 미국의 네바다주 사막에서는 소형정밀유도 핵무기 《B61-12》 시험이 진행되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그것이 북을 겨냥한것이라는 사실을 까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이 핵무기가 보복용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쓰일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로부터 몇달후 북은 첫 수소탄시험의 퇴성을 올렸다. 보는것처럼 미국의 핵위협이 증대될수록 북은 핵능력을 질, 량적으로 부단히 강화하는것으로 맞섰다.

얼마전 유엔총회의 마당에서 까지 북을 《완전파괴》하겠다고 한 트럼프의 망언이 다시금 시사해주는것처럼 유엔현장도 마구 짓밟고 걸핏하면 다른 나라들에 침략의 불세례를 들쭉우는 미국에게서는 그 어떤 자비도 바랄수 없다. 최대의 억제력인 핵을 쥔 나라도 절멸시키겠다고 광기를 부리는 미국일진대 상대가 핵이 없다면 미국은 좋아라 불소나기를 마음껏 퍼부어낼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것도 이 나라에 대량살상무기가 없다는것을 유엔사찰과 정보활동을 통

해 《100% 확신》한데로부터 단행한것이라는 미국내의 증언이 또다시 울려나온것도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라크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힘이 약한 탓에 미국의 먹이감이 되었지만 북은 그와는 전혀 다르다. 미국과 당당히 맞설수 있는 위력한 핵무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싸일장착용 수소탄은 거대한 살상파괴력을 발휘할뿐아니라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초강력 열핵무기로 알려져있다.

북이 첫 수소탄시험에서 성공하였을 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전하였다. 《만약 북조선이 저런 수소탄을 적대국의 대도시상공에 터뜨리면 핵폭풍만이 아니라 강력한 전자파가 발생하여 모든 전자제품과 전기설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사람이 살수 없는 지옥같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전 사무차장도 얼마전 북이 보유한 《EMP탄은 매우 높은 고도에서 폭발하기때문에 요격이 어렵고 매우 광대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단지 몇기만 보유해도 엄청난 억제력을 갖게 된다.》고 실토했다.

트럼프가 이런 북을 감히 다칠수 있겠는가. 서빨리 덤벼들었다가는 미국본토가 재앙의 천지로 변할터인데...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기

의 유엔총회연설에 분노하여 《사상최고의 초강경대응조치》를 예고한 북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오래가지 못할것》이라고 악설을 또 늘어놓았으니 정말 미쳤는지, 미치광이처럼 노는지 소가 웃다 꾸미 터질 노릇이 아닐수 없다.

오래가지 못할것은 정의와 힘을 모두 갖춘 북이 아니라 침략과 살륙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자멸의 불속에 서슴없이 뛰어들려고 날치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전쟁을 직접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합참의장 단포드는 며칠전 상원군사위원회 회의의 재인준청문회에 출석하여 《북조선은 미국본토를 핵으로 타격할 능력도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고 심중하게 말하였다. 미국은 북의 핵무력완성의지를 꺾을수 없고 싸워서 이길수도 없다.

지금 승리의 문어구에서 가슴 내밀고 서있는것은 북이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이 상징하듯 한때 그 위세를 뽐내던 고대로마제국이였지만 종당에는 망하고말았다.

지금 미국의 운명이 망하기전의 고대로마제국을 련상케 한다.

미국은 북과의 승산없는 싸움에서 이제는 물러서는것이 상책이다.

이 세상 제일 강하고 위대하신분을 령수로 모시고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의 단결을 이룬 인민이 있으며 애국의 병진로선에 따른 무진막강한 국가핵무력이 있어 북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것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포 최수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하여 만대에 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철세의 애국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심자이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로 우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져서는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 한지붕아래 자주적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겨레의 모습만이 자리 잡고있었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여러차례 판문점에도 숭고한 통일애국의 자욱을 새기시었다.

주제 85 (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철학을 실천하는데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었다.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통일령도업적을 가슴뜨겁게 추억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대로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놓으실 굳은 결심을 천명하시었다.

# 겨레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운동발전의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불후의 고전적작품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언을 철저히 관철하자》, 《은 민족이 대 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시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었다.

불신과 반목, 대결의 긴 력사가 흐르던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격동적인 환희의 사변들을 안아온 6.15자주통일시대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그토록 마음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헌신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와 대응단

어 의하여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핵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채택발표된것은 자주통일의 력사적리정표를 마련하고 조국통일의 전면적국면을 열어놓은 특기할 사변이었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겨레에게 6.15공동선언을 안겨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래동안 굳게 단혀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넓은 길을 열어 주시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하늘길, 땅길, 바다길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조의 통일대하가 도도히 흐르는 격동적인 사변들이 펼쳐졌다.

6.15공동선언발효후 북남사이에 계층별 통일대회들과 상봉모임, 토론회, 민족통일대추진 등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치르어져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고 겨레의 자주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다.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경제인, 언론인, 문화인, 종교

인 할것없이 각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오가며 우리 민족은 피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문화도 하나, 력사도 하나임을 가슴뜨겁게 절감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7년 10월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해주시고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도 채택하도록 하시어 조국통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는데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주시었다.

아버이장군님께서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거세말살하려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던 2008년 9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국가이다》라는 담화를 발표하시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은 민족자주의 선언, 민족대단결의 선언이며 조국통일의 대강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대강을 더욱 빛내주시어 우리 민족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높이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며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확신성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었다.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외지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수많은 정당, 단체들과 광범한 각 계층인들은 두차례의 력

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철세의 애국자, 민족의 아버지로 높이 칭송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선언들을 채택발표하시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장거》라고 하면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시어 아버지장군님의 크나큰 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조국통일업무를 끝까지 이룩할수 있게 하는 든든한 밑천이다.

한평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며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다.

오늘 겨레의 자주통일 위업은 또 한분의 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즐기치게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사상과 로선,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서버리시며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힘있게 불려일으키고 계신다.

우리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심으로 높이 모시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자주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권 동호

## ◎ 력사적인 10월 상봉의 나날에 ◎

### 군사분계선을 넘어 룩로로

주제 96 (2007)년 10월, 분렬 62년만에 처음으로 남측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왔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북남수뇌상봉을 앞두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그 어떤 형식과 틀에 매달리면 안된다고 하시며 군사분계선의 룩로를 따라 들어오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또한 먼곳에서 오는

친혈육을 동구밖입구에 까지 나가 반갑게 맞아들이던 조상들의 옛 풍습 그대로 일꾼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남측일행을 현지에서 마뎀이 맞아들이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측대통령과 상봉하신 그날 김대중대통령은 하늘로 오셨는데 로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룩로로 오셔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하시었다.

### 언제나 편하게 래왕할수 있는 관계

력사적인 첫 회담이 진행될 때였다. 회담과정에 문득 로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장군님께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해올리었다.

장군님께서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가는가? 수시로 놀러가는것이다, 국가간의 관계라

면 정례적이라는 말이 맞지만 북남관계에서는 맞지 않다, 수시로 만났다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하시며 북남관계는 언제든지 편하게 래왕할수 있는 관계라는 대답을 주시었다.

### 《 무료로 오셔도 됩니다 》

평양상봉 전기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자리는 편했는가, 점심을 잘 드셨는가, 옥류관국수를 드셨다는데 평양국수와 서울국수중 어느것이

더 맛있었는가, 수시로 만나자고 했으니 또 많이 만나자고 하시며 대통령 내외와 수행원들의 생활을 육친의 정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

남측대통령이 회담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가기에 앞서 장군님께 퇴임후 다시한번 평양을 방문하고싶다는 의향을 내비치었을

때였다. 아버지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며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무료로 오셔도 됩니다.》라고 그의 청을 쾌히 승낙하시었다. 본사기자



## 공화국정부의 주체적 조국통일로선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전면적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민족공동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시고 한평생 구현하여오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여오신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진민족의 룽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해방직후의 그처럼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되고 여기에서 일정한 합의가 이룩되게 된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자주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노력하면서 뜨거운 동포애적조치와 여러 갈래의 대화를 통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켰다.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이 열리고 마침내 자주, 평화통일, 민

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1980년대에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되

게 된것도, 1990년대에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조국통일을 위한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이 발표되게 된것도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어 민족이 나아가길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은 공화국정부의 주체

적조국통일로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통일의 대헌장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통일외지로 북남공동선언들을 마련해주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주시것은 시대와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영원불멸할 업적이다.

6.15자주통일시대에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열기가 삼천리강토에 넘치고 조국통일운동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와 사변들은 공화국정부의 주체적조국통일로선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며 그 거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조국통일3대현장으로 정립하시어 민족이 나아가길 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현장은 공화국정부의 주체

적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방침을 제시하여주시었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현 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었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에 관한 조국통일방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관철하여 온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게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통일방략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겨레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미제의 극악무도한 북침핵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련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이 땅우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하루빨리 안아오

박영길

## 《10.4 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 진행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재말고 대화로! 남북관계개선과 평화번영으로!》라는 주제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를 가지었다. 대회에서는 10.4선언발표 10돛에 즈음한 북, 남, 해외의 공동호소문이 발표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공동호소문에서 《〈한〉 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은 민족의 사활이 걸린 과제》라며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

운하며 군사력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미국정부의 발언과 군사행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쟁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온 겨레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모두가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각계의 발언들이 이어졌다. 본사기자





# 10. 4선언 발표 10돐에 즈음한 북, 남, 해외 공동호소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청사진을 담은 10.4선언이 발표된지 10돐이 되었다.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리정표인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적, 제도적장벽을 해소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고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전취물이다.

10.4선언이 제대로 리행되었다면 우리 겨레가 북과 남을 오가며 이룩한 민족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변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게 되었을것이며 우리 겨레는 이미 조국통일의 문어구에 들어섰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리행되지 않았으며 해외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올린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소중한 성과들은 처참하게 짓밟히고말았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음모와 북남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 《정권》의 민족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의 전면단절은 물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도 날

로 고조되었다. 대규모의 초불항쟁으로 남쪽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지만 이전 《정부》들이 추구해온 민족분열, 대결정책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길은 여전히 막막해있다.

역사적인 10.4선언발표 10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단절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위기가 극한점에 달한 지금 6.15공동선언실천 북, 남, 해외측위원회는 고조된 핵전쟁위험을 막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북남사이의 호상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며 분

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장벽을 없애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수립은 민족의 생활이 걸린 과제이다.

최근 북의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사용을 공공연히 떠벌이는 미국집권자 트럼프의 망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심각한 모욕이고 훼손이다.

겨레의 운명과 리익을 외세에 내맡겨서는 결코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나갈수 없다.

수십년간 이 땅에 포아리를 들고앉아 온 겨레를 고통에 빠뜨린 전제체제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것은 민족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제이다.

우리 민족구성원모두가 자기 운명의 주인, 주권과 평화의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안녕을 지키며 조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함께 나서자!

-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6. 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2017년 9월 27일

## 자멸을 부르는 트럼프의 전쟁피리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유엔무대에서 트럼프는 북의 《완전파괴》를 떠벌여냈다.

늑다리미치광이의 정신병적인 광태와 폭언을 북은 《선전포고》로 락인 하였으며 반드시 불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전역이 악몽에 시달리고있다.

미국의 주들에서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핵전쟁으로 인한 《초대형참사》를 《예방》한다는 통신문을 발표하였으며 하와이주, 알래스카주는 이미 비상대응책을 실시하고있는 판이다.

미국의 많은 주민들이 핵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날과 달을 보내고있으니 이 모든것은 매련등이 트럼프의 잘못 놀린 입 때문일것이다.

주권 국가를 《완전 파괴》하겠다는 경악을 자아내는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이 북의 무자비하고도 섬멸적인 초강경대응조치단행선포로 거꾸로 미국인들에게 불안과 핵전쟁공포증을 들춰우고있는것이다.

미국의 군사안보전문가 집단인 《플로에어스 펀드》는 현 미국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하면서 조선이 《협력해주는 조건》에서 요격이 가능하며 《리상적인 조건》에서의 요격확률도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미최후결전의지로 불려지는 북과의 《협력》이나 《리상적인 조건》이란 사실 있을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종화, 다기능화되고 수스타까지 장착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인들 어떻게 막아낼수 있겠는가.

남북전쟁이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타국의 본토공격을 받아보지 못한 미국 땅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공격을 겪어본것은 9.11 사건뿐이다.

한갓 민간항공기공격으로도 110층짜리 세계무역센터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미국방성청사도 공격받았다. 또 다른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당시 뉴욕과 워싱턴은 물론이고 미국전역이 삼시에 수라장이 되었었다.

이것이 일명 《악몽의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9.11사건이다.

만약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로켓이 미국 본토에 떨어진다면 그 참상은 그때와는 대비가 안될것이다.

9.11사건후 미국내에서는 방위상 약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연방터져나왔다.

가장 큰 우려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핵시설들이 공격당하는 경우였다.

현재 미국전역에는 1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가 널려져있다.

한개의 원자력발전소안에는 핵무기가 폭발할 때보다 1000배나 넘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있어 원

자력발전소 하나가 외부로부터 공격받는다면 1000개의 핵무기가 폭발하는것으로 된다. 그러나 100여개의 원자력발전소는 미국인들에게는 《핵시한탄》으로도 되는것이다.

원자력발전소만이 아닙니다.

9.11사건이후 미국회는 전국적으로 가장 위험한 화학공장 120여개중 극히 일부만 폭발하여도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으며 정교한 핵무기의 공격이 아니라도 원시적인 핵폭탄으로도 막심한 피해를 입을것이라고 아우성쳤다.

암둔한 늑다리 트럼프는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있거나 아직도 저들의 땅을 누구도 다칠수 없는 《성곽》으로 착각하고있는 모양이다.

전쟁은 자비가 없다. 미국이 북을 《완전파괴》시키겠다고 전쟁불명치를 들고 덤벼든다면 그 순간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 파괴되는 날이 될것이다.

부동산투기나 해먹던 늑다리가 사기와 협잡으로 대통령이 되고나니 어별특지가 되게 커졌다.

세계평화를 론하는 유엔무대마저 전쟁과 살육을 설교하는 무대로 어지럽힌 트럼프는 자기의 전쟁광기가 미국의 파멸을 부르는 전주폭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재카나다동포 김준식

올해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틀날리고있는 《트럼프 필하모니》의 《아메리카광상곡》에 대해 알고있습니까.

미국의 오늘을 형상한 《아메리카광상곡》은 《아메리카제국》에 자위의 핵으로 대응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대한 위협》, 《악마》로 몰아 제거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만방에 떨치기로 한 《피짜》(사실은 트럼프자신이라고 합니다.)를 《현대의 영웅》으로 찬미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모두 4악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아메리카광상곡》은 트럼프 자신이 직접 작곡한것이라고 합니다.

지휘도 물론 트럼프가 하는데 악단의 구성원들은 세계 5대륙에서 모인 《이름난 악사》들이라고 합니다.

1악장은 총제목과 같은 《아메리카광상곡》으로서 트롬본을 위한 환상곡입니다.

여기서는 《조선》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 《조선》이 《잘못》을 스스로 누워치게 하여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현대의 영웅》이 되어보려는 《피짜》의 천진란만한 공상과 칼날같은 야심을 웅장한 소리를 내는 트롬본의 고음구음색을 기본으로 펼쳐보인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트롬본연주는 악기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트럼프입니다.

2악장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는 《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1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미국의 《전통》인 《전략적

## 제 무덤을 제가 판다

미국집권자가 유엔총회에서 내뱉은 비리성적인 망발은 공화국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의 산물이고 한 주권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로 된다.

공화국 외무상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호전적인 망발을 뱀 트럼프를 호되게 답대길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얼굴을 붉히며 미국의 불망나니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친미굴종에 환장한 남조선의 집권세력

과 정치인들이다. 집권여당은 대변인을 내세워 《국제사회를 대상하여 협박한 북의 태도는 외면과 고립을 자초하는것》, 《원세적인 막말과 비방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연설》이라고 고아대면서 《사과》해야 한다는 너두리질을 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것들도 공화국 외무상의 연설을 곁들면서 《도발은 북정권의 완전파괴만 부를뿐》, 《스

스로 무덤과는 격》 등으로 악담질을 해냈다.

지금 공화국만이 아닌 온 세계가 유엔력사에 류례없는 망발을 쏟아낸 트럼프에 대한 비난과 저주로 끊고있다.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마구 뱀뱀 미국집권자는 말폭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맞아 뱀져도 할 소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온 세계의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킨 미국집권자의 망발에 대해서는 반색하며 극구 찬양하면서도 이를 단죄한 공화국 외무상의 연설을 곁들였으니 친미시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정신병자들의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역사적으로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이 미국상전에게 발라맞추며 《동맹강화》를 추구해왔지만 미국은 언제한번 이들을 동맹자로 대해준적이 없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 아무때건 제 마음대로 부러먹어도 되는 한갓 노복, 북침전쟁으로 내몰기 위한 돌격대, 총알받이로 여겨왔을뿐이다.

이미전에 트럼프가 공화국에 대해 《전쟁불사》를 뱀치면서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반도에서 나는것이 고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것》이라고 거머

을 토한것도 그것을 잘 말

해준다. 이번에 트럼프는 또다시 《완전파괴》폭언을 늘어놓음으로써 미국이야말로 더러운 침략과 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조선반도를 통채로 핵재난속에 몰아넣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는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흉악무도한 불량매국가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지금 조선반도에 불을 질러 온 겨레를 멸살시키겠다고 으르렁대고있는데 그런 외세와 한쪽이 되어 돌아치고있으니 이게 어디 정신이 온전한자들인가.

이런자들때문에 미국이 더욱 날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더욱 박두해오고있는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미국집권자의 망발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기 위해 반미최후대결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미국에 빌붙어 동족을 끌까지 해치려고 악을 써대는것은 제 죽는지도 모르고 불속에 뛰어드는 부나비의 행동그대목이다.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세력들이 대대도 모르고 지금처럼 트럼프의 미친 폭조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는 상전과 똑같이 불벼락을 뒤집어쓰는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만필 《트럼프망상곡》

담겨져있던지.

3악장의 제목은 《제재, 오직 제재뿐》이라고 합니다.

《조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인민생활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친 광범한 제재를 집중적으로 들이댄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통절한 제재》를 위해 모두가 《단결》하며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북》과 똑같은 《악마》로 보고 《매성》(마들림)의 대가를 독특히 불꽃이라는 《피짜》의 강자와 역지를 어둡고

거칠며 입김이 많이 드는 트롬본의 저음구음질과 《피짜》의 강요에 대하여 《총의》가 넘친 서울산 피리의 침울한 음색과 도

묘한 사미센의 간특한 줄팅김소리가 복합된 3중주의 조화로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궁소리나 바얀 소리가 장단을 맞추기도 합니다.

4악장은 《완전파괴》입니다.

아무리 얼려보고 으름장을 놓아보고 온갖 《제재》를 가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피짜》가 드디어 핵전력자산이라고 《병정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절멸》시키겠다고 으르렁대는 광란적모습을 형상하였다

고 합니다. 생동감을 돋구느라 어둡침침한 조명속에 기괴하고 자극적인 선율을 기본으로

입니다. 장을 놓아보고 온갖 《제재》를 가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피짜》가 드디어 핵전력자산이라고 《병정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절멸》시키겠다고 으르렁대는 광란적모습을 형상하였다

고 합니다. 생동감을 돋구느라 어둡침침한 조명속에 기괴하고 자극적인 선율을 기본으로

입니다. 장을 놓아보고 온갖 《제재》를 가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피짜》가 드디어 핵전력자산이라고 《병정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절멸》시키겠다고 으르렁대는 광란적모습을 형상하였다

고 합니다. 생동감을 돋구느라 어둡침침한 조명속에 기괴하고 자극적인 선율을 기본으로

입니다. 장을 놓아보고 온갖 《제재》를 가해도 통하지 않게 되자 《피짜》가 드디어 핵전력자산이라고 《병정기》를 휘두르며 《조선》을 《절멸》시키겠다고 으르렁대는 광란적모습을 형상하였다

고 합니다. 생동감을 돋구느라 어둡침침한 조명속에 기괴하고 자극적인 선율을 기본으로

니다.

원래 관현악은 큰 울림과 넓은 음폭, 다양한 음색으로 시대와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 기악연주형식인데 트럼프가 트롬본독주로 독관치다싶이 한테다가 환상적이라는 악상마저 자기의 성격처럼 까다롭고 번덕스럽고 변태적이

다나니 악사들이 리해할수 없고 연주하기 힘들어 불평을 늘어놓다 못해 신경질을 내게 된것입니다.

3악장까지는 그럭저럭 흘렀지만 《완전파괴》라는 4악장에서는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더니 그럴바엔 트럼프 너 혼자 연주해라 하며 악사들이

등을 둘러댄것입니다. 시작부터 얼굴을 찡그리고 귀를 막고있던 관람자들의 항의의 목소리도 대단합니다.

《로망한 광란자》, 《늑다리 미치광이》, 《트럼프 자중하라! 적당히 까불어라》, 《강패두목》, 《신 히틀러》, 《몽유병환자》...

트럼프가 그토록 고심하여 창작했지만 《아메리카광상곡》은 결국 《트럼프망상곡》으로 되고말았던것입니다.

김정혁



# 비참한 종말을 면하려거든...

미국집권자의 유엔총회 망발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성명은 리성을 잃고 분별없이 날뛰는 늑대리미치광이에 게 보내는 최후통첩으로서 온 민족과 진보적인류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남조선당국은 트럼프의 미치광이나발을 《북으로 하여금 비핵화만이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한것》이라고 두둔하다 못해 22일 통일부와 외교부것들을 내세워 《타국을 적대하는 도발》,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협적언사》라고 결코고는 무모한 망동을 부리었다.

남조선당국의 추태는 미국의 총전, 전쟁수수의 정제와 본색을 더욱 여실히 드러낸 추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며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결코고는 특대형도발이다.

이번에 세계최대의 공식 외교무대에 처음으로 나선 트럼프가 공화국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지구상에서 완전 없애겠다고 함부로 짓어댄 것은 공화국에 대한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수 없고 용서받을수도 없는 정신병자의 광태이다.

오죽하면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트럼프의 망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국제정치무대에 새로 등장한 히틀러》, 《제앙을 불러오는 미치광이》, 《유치하고 흉악한 강패 두목》, 《유엔을 전쟁위협마당으로 전락시킨 불망나니》라는 비난과 저주가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오히려 동족의 절멸을 공공연히 췌쳐댄 트럼프의 미친 폭언에 대해서는 로골적으로 반색하고 공화국의 정당한 초강경 대응립장은 《타국에 대

한 적대》와 《위협》으로 결코들었으니 미국의 총전, 사대미국노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는가.

민족의 구성원이라면, 마음속에 조선사람이라는 한조각 량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민사람의 지란을 받을 이런 망종짓을 감히 하지 못했을것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대화》라령을 귀따갑게 늘어놓으며 여론을 어지럽혀왔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번엔 민족보다 전쟁과 인간살육에 미쳐돌아가는 외세를 우선시하고 무작정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며 동족을 헐뜯어댈으로써 《대화》와 《평화》타령이 한갓 기만이고 실지로는 동족대간이고 북침전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금도 남조선당국은 미국상전과 《압도적인 대북 군사력우위 확보》와 《련합방위태세 강화》를 합의

한데 따라 미제침략군의 전략폭격기 《B-1B》를 1개월에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선반도상공에 끌어들이기로 하는 등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의 순환배치와 최첨단무장장비들의 구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달라붙고 있다.

이러한 더러운 친미굴종행위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광기를 부채질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범죄행위이며 자멸을 촉진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자기 민족보다 외세를 우선시하고 무작정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동족을 헐뜯는 이런 역적들이 그 무슨 대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내외여론을 우롱하는것이라 해야 할것이다.

지금 극악무도한 미국과 단호히 결판을 내교야 말 공화국 천만군민의 멸적의 의지와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바로 보고 제 운명을 망치지 않으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

얼마전 남조선 집권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과 《대화》에 대해 운운하였다. 그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이라는데서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평화론자》인듯이 놀아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있는 책임에서 벗어 나보려는 술수이며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대화》와 《평화》에 대해 곧잘 위태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적극 가담해나 서고있다.

대표적인 실례로 현 집권자는 최근에 진행된 미국과의 《정상회담》이라

는데서 《북 완전과피》를 떠벌인 트럼프의 유엔총회망발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비굴하게 놀아냈다. 이번 남조선미국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세계언론, 전문가들은 유엔총회연설에서 트럼프가 《북 완전과피》를 운운한 반면 남조선집권자는 《평화》를 《강조》한 직후의 《회담》인것만큼 그가 트럼프에게 《전쟁은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할것으로 예상하였었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자는 40분동안이나 진행된 《회담》에서 지금까지 끝날 외위대던 《전쟁반대》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트럼프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었는데 그런 강력함이 북을 반드시 변화시킬것이라고 확신》하며 《북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해주어 감사》하다는 너두리만 늘어놓았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현 남조선집권자가 추구하는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다. 입으로는 《평화》를 떠들지만 행동은 미국의 전쟁행동을 부추기고있는 것이다.

따지고보면 그가 집권후 오늘까지 한 일이란 이전 보수적패당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대미추종과 동족대결책동뿐이다.

공화국의 거둬되는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위험천만한 《울지 프리덤 가디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벌려놓았으며 지금도 북침행진전쟁광풍에 떠돌아있는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주변해역에 끌어들여 핵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어리석은 《싸드》 배치 완료를음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부채질한것도 남조선당국이고 미국산 무기구입에 더욱 열을 올려 정세를 더욱 긴장격화케 몰아가는것도 현 남조선당국이다.

10.4선언발표 10년이 다가오는 지금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것도 남조선의 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북남관계를 미국과의 반공화국 《제재공조》의 틀에 얽매여놓고 국제적인 《초강력 압박제재》소동에 계속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남조선당국은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자기의 행동부러 돌이켜봐야 한다.

대미추종, 동족대결이 초래할것은 겨레가 사는 이 땅에 열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것뿐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 계속 드러나는 특대형 정치레로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역도가 집권기간 정보원을 비롯한 탄압기구들을 동원하여 진보적경향의 정치인들과 언론인, 문화예술인, 학자들을 《좌파》, 《빨갱이》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탄압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있다.

현재까지 폭로된데 의하면 리명박역도는 집권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끼고 정계와 사회계, 문화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회전반에서 저들에게 반감을 가진 단체와 대상들에 대한 《오시찰명단》을 작성해놓고 청와대와 정보원, 군부, 국우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사회적영향을 차단하고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폭압통치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특히 정보원과 군부에 《좌파대우팀》과 《심리전단》들을 내왔으며 오시찰대상들에 한하여 재정지원차단, 인터넷통제 통한 《후색선전》, 흠집만들기, 법원고소, 국우단체들을 통한 정신적 및 신체적압박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이 정보원의

항시적인 감시와 박해속에서 고통을 겪었을뿐 아니라 취업과 활동이 억제당하였으며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들은 물론 지방방송들까지 극도로 어용화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남조선에서 드러나고있는 정보원졸개들의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이고 그자들은 송사리에 불과하며 주되는 범죄자, 왕계, 언론계, 학계 등 사회회전반에서 저들에게 반감을 가진 단체와 대상들에 대한 《오시찰명단》을 작성해놓고 청와대와 정보원, 군부, 국우보수단체들을 총동원하여 그들의 사회적영향을 차단하고 활동을 제압하기 위한 폭압통치에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특히 정보원과 군부에 《좌파대우팀》과 《심리전단》들을 내왔으며 오시찰대상들에 한하여 재정지원차단, 인터넷통제 통한 《후색선전》, 흠집만들기, 법원고소, 국우단체들을 통한 정신적 및 신체적압박 등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이 정보원의

언론시민련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각계층은 《민주주의질서를 유린한 특대형범죄이며 정치레로 행위》, 《리명박은 박근혜를 풍가하는 회대의 정치사기꾼》, 《선량한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비열한 여론공작으로 인격살인을 하였다》, 《리명박의 좌파세력탄압이 박근혜보다 더 악랄하여 소름이 끼친다》,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리명박역도의 죄행을 철저히 수사하여 응징할것을 강하게 요구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는 《리명박은 천하의 악당》, 《부끄러운줄 알아라》, 《글로 욕하는것도 아깝다》, 《박근혜와 같이 감옥에 보내라》는 글들이 무수히 오르고있고 언론론들은 《피해자들의 련이은 고발로 리명박이 검찰수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리명박이 빠져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력사의 무덤에서 계바라나오려고 최후발악하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그 잔당들은 저들이 지는 만고죄악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준엄한 철추를 피할수 없게 되었다.

본사기자 최광혁

# 황당한 《대북정책》이 만들어낸 집안싸움

최근 남조선집권자의 《대화》와 《압박병행》이라는 모순적인 《대북정책》으로 하여 현 당국내부에서 갈등과 마찰이 일고있다.

한쪽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이 선차라고 하면서 《〈한〉미일공조》와 《초강력제재압박》을 주장하고 다른쪽에서는 《대북경정일변도로 나가다가는 〈통미봉남〉에 빠져들 수 있다》며 아무재기를 치고있다. 지어 서로 《인신공격》까지 해대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팀이 대중지란에 빠졌고 《대북정책》이 황당한 《대북정책》이라는 모순적인 《대북정책》에 매달려왔다.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쌍방이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자는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를 다져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하는것이다. 반면에 압박은 대결상대방을 질식시키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힘의 사용이다. 결국 《압박과 대화의 병행》이라는것은 중당에는 대화를 부정하

고 대화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반공화국고립압박책동에 적극 가담하면서 그 무슨 《대화》타령을 떠들며대는것이야말로 자가당착에 빠진 궤변이 아닐수 없다.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대미추종과 북남관계사이에 서 항방없이 오락가락하는 리명박은 《국가안보실》과 《현대관》의 희생물은 국민이다》, 《북핵문제보다 집안단속이 더 중요하다》 등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더 우기 남조선정치권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싸드》를 밀반입해놓고도 공동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숨졌던

국방부가 집권자와는 별도로 미국과 수시로 련계를 취하고있으며 미국이 그들을 통해 현 남조선당국의 일거일동을 손금보듯 주시하면서 정세를 조종하고있다는 여론까지 돌고있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진단내린다는 권위는 외국의 한 전문가가 남조선집권자의 처지를 두고 《한마디로 불쌍하다》라고 말했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주대없이 놀아내다가는 머저리취급을 당하는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운명도 망쳐먹게 된다것을 명심하고 친미굴종적자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 정치간상배들의 비렬한 야합놀음

얼마전 남조선에서 《국민의 당》의 안철수와 《바른정당》의 《련대파》가 밀실모의를 벌려놓고 《국민통합포럼》이라는 련대기구라는것을 내왔다 한다. 여기에서 이들은 앞으로 《국민통합포럼》을 통해 《선거제도개혁, 공공부문개혁, 경제활성화법 등 중도개혁적인 정책과 법안》들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것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법안들에 대해서도 두당이 련대하여 대응하는 방법으로 현 당국의 독주를 막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한편으로는 《중도혁명전쟁위협》트럼프를 입 다물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죄행을 단죄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본사기자

지체선거뿐아니라 차후 대선까지 힘을 모을것이다.》등으로 권력을 차지해보겠다는 저들의 추악한 속내도 꺼리낌없이 드러내놓았다. 권력에 환장한 사이비정치인, 정치철새들의 비렬하고 추잡한 정치야합놀음이 아닐수 없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국민의 당》이라는것이 2016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들이 권력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중도를 표방하며 떨어져나온 정객들의 집합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바른정당》역시 권력을 추구하여 2017년 보수세력들속에서 떨어져나온 《악마와도 손을 떨어》있는 거대 량당의 기득권정치를 막고 중도통합에 의한 정계개편을 실현하겠다.》, 《레년 지방자

족은 중도를 표방하는 《국민의 당》이 보수적패당인 《바른정당》과 손을 잡았다는것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를바 없다. 이것은 리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할데 대한 초불민심과 전라도지역지층에 대한 《국민의 당》의 로골적인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

따지고보면 안철수와 새정치민주연합(현재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들이 권력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자 중도를 표방하며 떨어져나온 정객들의 집합체라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바른정당》역시 권력을 추구하여 2017년 보수세력들속에서 떨어져나온 《악마와도 손을 떨어》있는 거대 량당의 기득권정치를 막고 중도통합에 의한 정계개편을 실현하겠다.》, 《레년 지방자

상인 보수야당과 야합해서라도 침체상태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다음해 지방자치체선거에서 존재감을 시위하며 현 집권당국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몸값을 올려 《대권》야망을 거고 실현해보려는 안철수와 《국민의 당》의 더러운 흥심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현실은 안철수가 정치권에 나섰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정체가 모호한 인물》이라고 평한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의 역겨운 입맞춤은 력사의 심판을 받고 궁지에 몰린 보수패거리들에게 숨통을 열 기회를 조성해주는 무서운 반역행위로서 초불민심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 부산시민단체들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를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국민주권련대 부산준비위원회와 부산민권련대의 공동주최로 24일 부산항 8부두앞에서 《트럼프는 그 입 다물라》는 주제의 집회가 진행되었다.

집회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정을 반영한 반미주제의 노래들

을 불러 참가자들의 투쟁열기를 북돋아주었다. 발언자들은 최근 북에 대한 트럼프의 패권적망발을 통해 미국의 침략적본심이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21세기 투쟁방향은 반미라고 주장하고 앞으로 더 많은 각계층 민중들과 함께 매달 부산항 8부두앞에서 미군의 생화학무기실험실척추운동을

비롯한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초불의 명령이다. 미국적패청산하자》, 《입만 열면 전쟁위협》트럼프를 입 다물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오고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의 죄행을 단죄하는 선전활동을 벌렸다.

본사기자



## 나라들사이의 경제적교류와 협력을 추동한 전람회

— 제 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 진행 —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제13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진행되었다. 조선국제전람사의 주최로 해마다 봄과 가을철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상품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되고있다. 이번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조선반도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된 가운데 열리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역력강화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전례없는 대조선제재와 군사적압박속에 매달리고있다. 더우기 공화국에 대한 트럼프의 《완전과피》망발은 존엄높은 주권국가에 대한 용

납 못할 도전으로서 가득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욱더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린것으로 하여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는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전람회에는 조선과 수리아, 중국, 쿠바,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회사들이 출품한 각종 전기 및 전자설비, 튜닝기재,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들이 전시되어 참관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번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서는 기업체들사이의 경제기술적교류와 무역거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설명회와 면담, 제

품소개 등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한 기업관계자는 이번 전람회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의 혹독한 제재를 받으면서도 조선의 경제가 날로 활성화되고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다른 나라의 기업관계자들도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조선은 투자조건과 전망이 매우 좋은 매력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평양국제상품전람회에 계속 참가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이번 전람회를 주최한 조선국제전람사의 한 일

군은 《이번 전람회기간 다른 나라 기업들과 우리 나라의 많은 회사들 사이에 다방면적인 투자방안이 논의되었다. 이것은 적대세력들의 날로 약탈해지는 반공화국제재와 봉쇄속에서도 끄떡없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전진하고있는 우리 조국의 막강한 위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전람회는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도모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박철남

## 사화 병풍에 담긴 조소 (6)

글 신창섭, 그림 박봉혁

《아뵤싸, 내가 실수했나보군.》  
한명회가 것처럼 거만한 자세를 거두고 조금이나마 시습을 존대하려고 하는데 다 까닭이 있었다. 불미스러운 골육상쟁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어린 조카를 옥좌에서 쫓아내어 널빤지에 귀양가서 죽게 한 세조가 자기의 무지한 악행의 흔적을 부처님을 통해 없애버리려고 불교에 전념하였기때문에 그도 부처를 믿는 몸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 스님이 글을 잘 한다는게 사실이시요?》  
시습의 걸모양새가 비록 초라하기 그지없는 떠돌이중의 행색일망정 속내는 어쩐지 자기를 싣듯 드러내기 싫어하는 알이 들어있는 문사라는 느낌이 들었기에 한명회는 어지간히 호감을 가지고 또

물었다.  
《잘은 못해도 호기심을 물리치지 저어되나이다.》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글귀를 골라보시우.》  
한명회는 시습을 안방으로 들게 하고 주련이 늘 어세운 열두폭병풍을 구경시키었다.  
시습은 감탄을 금치 못해하는듯 연신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실로 명화로서이다.》  
《위천강남시터》라는 제목을 보고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옛날 주나라때의 강태공임을 시습은 어렵지 않게 알아보았다.  
병풍속에 살아있는듯싶은 인물은 시습의 머리속에 금시에 시상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내색

은 전혀 내지 않고 한명회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시요이까?》  
시습의 이 물음에 한명회는 힐끗 그를 흘겨보며 별로 기대할것이 없다는듯이 건성으로 대답하였다.  
《스님이 제아무리 글에 능하다 한들 생판 알지도 못하는 명인의 그림 폭에 어찌 붓을 댈수 있겠소?》  
《그래두 자상히 들으면 혹시 글귀가...》 하고 말끝도 채 맺지 못했는데 한명회는 습벽 그대로 시습의 뒤말을 이어 《글귀가 열릴수 있다 그 말이겠군.》 하며 마갑지 않은 기색을 지어보이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체뻗에 겨워 다시금 입을 열었다.  
《그럼 백이숙제는 아닌가?》

이번에는 분명히 시습을 알잡아보고 하는 물음이었다.  
그러나 시습은 한자세로 내색을 앓고 점잖게 대답하였다.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꺾다가 끓여죽었다는 그 백이숙제 말이오이까?》  
시습의 요약한 대답에 주 잘 아시는구먼. 그런데 두 그렇게 모르쇠를 하시오?》  
한명회는 얼굴에 어쭙은 웃음을 실으며 병풍속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제법 해대었다.  
《이 강태공이란 사람이 그때 큰 재상이었다구 어느 책엔가 씌여있어구만.》  
실상은 병풍임자인 학재에게서 들은 내용이라 는것을 다 알고있는데 내 흥스러운 한명회가 제가 마치 본것처럼 흥내를 내수 없게 되었다.  
《어허, 옹네 옹아. 아



## 우수한 악기제작기술을 보여준 전시회

최근 악기제작자들과 음악애호가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가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문악기생산단위들과 예술교육기관, 공장, 기업소들, 개별적인 제작자들이 창안한 90여종에 1900여점의 악기들과 부분품, 소모품, 악기제작을 위한 공구들이 출품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이목을 끈것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갖가지 민족악기들이었다. 《아리랑》상표표 단 평양민족악기공장의 옥류금, 장새납, 중음저대, 고음저대, 단소, 대피리와 같은 현악기와 목관악기들은 다른 나라 악기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음색과 모양새를 가진 우리 민족악기의 우수성을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국립악기연구소에서 출품한 원치차식줄조이개와 현악기용활송지는 어은금을 비롯한 현악기들

에서 음정변화를 없애고 조를하기 쉬우며 연주시간을 늘이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과 악기애호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가야금무릎받치개는 가야금의 미끄러짐을 극복하고 무릎접촉에 의한 울림통의 소리잡음을 없앴으로써 연주시 가야금의 고유한 음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음량을 높이고 연주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만수대에울림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도입되었다. 전시회에는 우아한 형태와 풍부한 음량, 화려한 음색을 가진 피아노들과 각이한 음역과 건반수를 가지고있는 손풍금과 바얀 등 양악기들도 많이 출품되었다. 공화국의 이름난 피아노생산기지인 평양피아노합영회사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건반의 감수성이 훨씬 개선되고 풍부한 음량과 화려한 음색, 색상이 다채로운 피아노들과 사용하기 편리하게 제작된 의자, 어린이에달을

출품하였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현악기용철감들과 바이올린선, 악기부속품들은 수입자재대신 국내산 원료로 만들수 있는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처녀시절 중앙예술단에서 활동한적이 있는 평양시 중구역에서 사는 라경숙녀성은 개천영예군인악기공장에서 만든 플루트를 연주해보고나서 《외국에서 만든 악기보다 음색이 맑고 누르개장치가 유연한것이 참으로 좋다. 우리 나라 악기제작술이 훌륭하다.》며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또한 국립교향악단의 한 연주자는 악기들의 질이 높아 섬세하고 다양한 연주수법과 아름답고 풍부한 표현력을 담보할수 있다고 하였다. 제9차 평양악기전시회는 높은 수준에 오른 악기제작기술을 보여주고 공화국의 문명강국건설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



##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개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집단이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영구보존하면서도 과학연구사업과 임상활동에 리용할수 있다.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에는 근 100만자에 달하는 원문한

자들과 5권의 번역문들이 모두 전자문서로 입력되어있으며 3000여개의 고려의학용어, 1000여종의 고려약자료, 1만자의 한자사전으로 자료기지가 구축되어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영구보존을 위해 수천페이지 지나 되는 원전이 화상화일로 보관되어있고 이에 기초하여 3만 5000여개

의 원문단락과 번역문사이의 1:1대응관계를 실현함으로써 학술체계에 따르는 분류, 검색 및 통계분석 등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다. 《동의보감》 열람프로그램 《유산1.0》이 개발됨으로써 고려의학연구사업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그리고는 다신 나타나질 않소그러. 은혜값음이라도 해야겠는데...》  
시습은 한명회의 이 소리에 입이 더욱 쓰거워났다. 낮간지럽게도 이런 속에 없는 말을 곧잘 할 줄 아는 위인임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자 시습의 머릿속에 굴리는 글귀는 더욱 날카로와졌다.  
《내가 드문이 풍자객이 됨은 바로 이런 때를 당함에 있을터이니...》  
시습은 또다시 한명회를 야모하기 시작했다.  
《아마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것이오이다. 정말로 당대의 인물을 알아보는 란복할만 한 사람이오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소.》  
시습은 자기가 무지한 탓에 속히온것도 모르고 깊이 감복한다는듯이 입을 열었다.  
《정말 뜻이 깊은 물건이오이다.》  
시습은 실로 감복이 된다는듯이 머리를 끄덕이였다.  
《값을 치르자고보니 어느새 문밖을 나섰더군.